

등록번호	예산정책담당관-3740
등록일자	2021. 12. 06
결재일자	2021. 12. 06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의회사무처장	의장
김효영	김정미	국정덕	김찬배	김명선
협조자				

2021. 11.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팀 장 : 행정5급 김정미 (☎ 5201)
담당자 : 행정6급 김효영 (☎ 5203)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1

회의개요

- 때 · 곳 : 2021. 11. 22.(월) 16:30~17:30 / 의회 소회의실(112호)
- 참석인원 : 14명(예산정책자문위원 10, 의회사무처장, 예산정책담당관 등)
- 주요안건
 - 2022년 예산안 토론회 평가 및 발전방안 논의
 - 2022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방향 등

2

회의내용

- ① 예산안 토론회 발전방안
 - 토론회 개최시기 조정 검토 : 11월 → 8~9월
- ②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충남형 도 · 교육청 공동사업 발굴 제안 등 재정이슈 주도
- ③ 2022년도 자문위원회 개최 시기
 - 예산정책담당관이 위원의 의견을 들어 정하기로 함

3

조치계획

- 예산정책자문위원 자문요청('21. 12.)
 - 충남형 도 · 교육청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 관련 제안(주제, 세부내용, 사례 등), 2022년 예산정책 분석주제 제안 및 분야별 자문 등
- 2023년 예산안 토론회(시기, 방향, 형식)에 관한 검토보고('22. 1.)
 - 국회 및 타 시도 예산안 · 결산토론회 사례조사
 - 의원 대상 수요조사(시기, 내용 등)
 - 도 예산담당관 및 도 교육청 예산과 협의

붙임 1

자문위원별 주요 발언 내용

성명	발언 내용
최진혁 (위원장)	▶ 2022년은 위드 코로나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자문형식을 필요한 부분과 상황에 맞게 위원들에게 이메일 발송 등 공유를 통해 협의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음 ▶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위원회에 자문요청 시 예산편성 결과만 던져놓지 말고 어떤 사업의 결정 배경(담겨진 스토리 등)을 파악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논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앞으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조례에 의하여 담아야 할 사업은 예산안에 담지 못하고 다른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를 짚어 주고 차츰차츰 개선되도록 의회의 심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함
전익현 (부위원장)	▶ 예산은 한정된 자원, 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 소통 부족과 예산부서의 주도적 예산 분배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예산은 법적 근거(법률, 조례)에 따라 편성되어야 함에도 그보다는 지사님 중심, 힘 있는 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매우 아쉬움 예) 내포신도시 한옥타운 조성 기본 구상을 보면, 한옥이 일반건축에 비해 건축비가 비싸 주민들은 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취득하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금 2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상향하였으나, 조례가 있어도 몇 년째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업의 진일보가 안됨 ↳ (최진혁 위원장)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재정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 발전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민에게 보다 솔직·투명하게 설명·설득·양해를 구해야 할 것임
방한일	▶ 교육재정이 커져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에 대한 대가나 명분이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찬성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교육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수가 늘었지만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도 복지예산이 비대해져 다른 분야로는 여유 재원이 없게 되었으며 특히, 연구 및 기초과학 분야는 앞으로 20~30년을 내다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함에도 늘 재정이 열악한 문제가 있음

성명	발언 내용
이선영	▶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전부 PDF 파일이라서 분석과 활용이 어려우니 성과와 집행률 분석을 통해 좋은 사업을 합리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엑셀로 작성된 파일 제공을 요청해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음 ▶ 엑셀 파일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함 ↳ (김찬배 의회사무처장) 예산담당관실에 협조를 구하겠음
유태현	▶ 도와 교육청이 각각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도와 교육청이 예산을 공동 부담하여 공동 사업을 발굴·추진하면 공통의 목적 달성과 지원 대상의 중복 없이 사업효과와 예산절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도와 교육청의 공동 사업을 자문위원회가 주도하여 이슈화를 통해 충남교육 재정 선도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위해 토론회·세미나 개최 도입
최두선	▶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편성할 수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그렇지 않은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 필요 ▶ 도의 세입이 늘어난 사유는 지방소비세 증액과 국세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여지며, 도세는 거래세가 대부분이고 경직성 경비가 많아 향후 재정운용이 더 어려울 수 있어 미리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최진혁 위원장) 도의 모든 자산이 노후화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감안하여 도 재정안정화기금을 튼튼하게 가져가야 함
진 혁	▶ 복지분야 예산이 중앙정부 수준으로 너무 촘촘하게 세분화(저소득, 노인, 아동, 다문화, 장애인, 여성 등) 되어 있어 다른 사업에 여유를 안주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
김찬배	▶ 이번 토론회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으나, 토론회 개최를 예산편성 이후로 하여 늦은감이 있고, 편성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 하다보니 의회 예산안 심의와 비슷하게 진행된 경향이 있음 ▶ 2023년 예산안 토론회는 예산편성 전으로 개최시기를 앞당겨 토론회에서 예산편성 방향성을 정립한 후 집행부가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임 ↳ (최두선 위원) 이번 토론회가 예산안을 가지고 분석해서 토론을 했는데 개최시기를 당기면 안건(예산안)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 ↳ (국정덕 담당관) 개최시기를 8, 9월로 고려하여 예산부서에 발제가 가능한지 의견을 물었더니 설명할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 ▶ 예산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내년도 도의회에 다양한 활동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붙임 2 회의진행 사진



붙임 3 회의 참석자 명단

연번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참석여부
1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최 진 혁	여
2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전 익 현	여
3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김 기 서	부
4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방 한 일	여
5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이 선 영	여
6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홍 기 후	부
7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강 마 야	여
8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김 갑 배	여
9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김 대 중	여
10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문 진 묵	부
11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우 명 숙	부
12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유 태 현	여
13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윤 정 원	부
14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이 영 숙	부
15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진 혁	여
16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최 두 선	여
17	의회사무처	처장	김 찬 배	여
18	예산정책담당관실	담당관	국 정 덕	여
19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정책팀장	김 정 미	여
20	예산정책담당관실	주무관	김 효 영	여